

# 2020 KOFISH 한국국제낚시박람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리에 마쳐”





## 거리는 두어도 마음은 가까이

박람회 첫날인 6월5일(금)에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개회식을 위해 (사)한국낚시협회 부스에 협회 회장단과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날 박람회 개최를 기념할 커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관람객들의 혼잡을 우려하여 취소하고, 개회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개회식에는 (사)한국낚시협회 김정구 회장,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김동현 회장, 이덕화 해양수산부 낚시홍보대사, (주)한국낚시방송(FISHING-TV) 김영준 대표, (주)한국낚시채널(FTV) 나채재 대표, 예조원 김국률 대표, APISS·코라낚시 김오영 회장, 심통낚시 심현보 회장, 낚시정보신문사 소동남 대표가 자리했다. 개회식은 방송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포토존으로 이동하여 기념촬영을 했다.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협회 회장단과 내외빈이 각 전시부스를 돌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개회식 인사말  
김정구**  
(사)한국낚시협회 회장

3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한국국제 낚시박람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3개월 연기하여 마침내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개최되었던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개최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큰 호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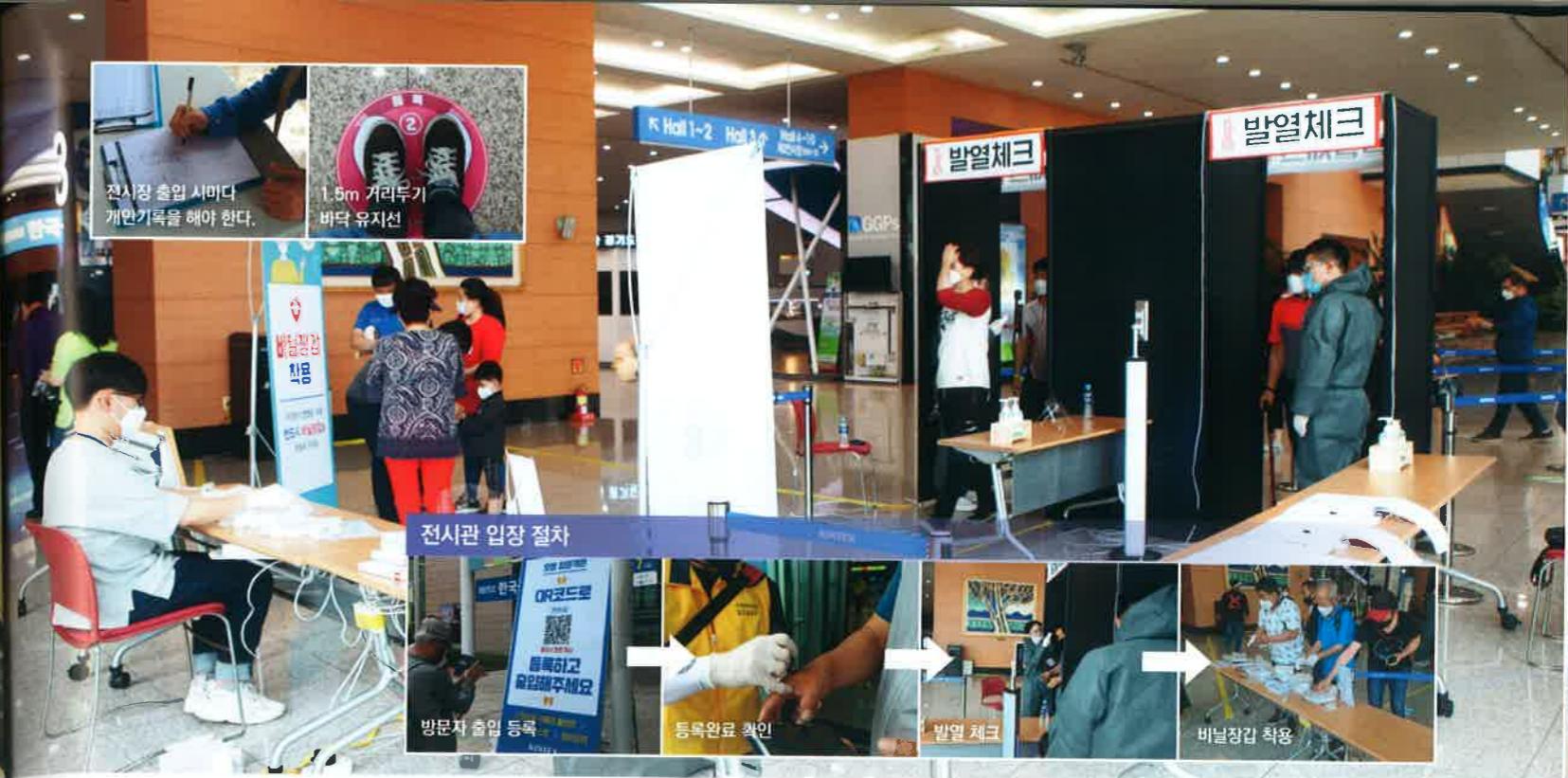
**개회식 축사  
이덕화**  
해양수산부 낚시홍보대사

올해에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개최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770만 낚시인들을 위해서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람회가 멀리지마자 벌써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것을 보면 이 박람회가 취소될지 모른다는 저의 걱정이 어불성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든 여건 속에서 준비해주셔서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참고로 만타까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낚시계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여서 유감이군요. (웃음) 낚시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앞으로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낚시협회 파이팅! 대한민국 낚시인 파이팅!

**개회식 축사  
김동현**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 참가하신 전국의 낚시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많이 힘드셨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국제박람회에서 낚시인들은 나들이를 즐기고 낚시업계 여러분들은 호황을 누려 그동안 쌓아온 스트레스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 K-방역을 넘어 이제는 F(fishing)-방역이다!

### 최근 이태원 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다시 한 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이번에 개최된 '2020 한국국제낚시박람회'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킨텍스에서도 앞으로의 전시행사 일정을 위해 관람객 방역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여 감염 차단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 한국국제낚시박람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감염 예방 조치 목록

-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출구와 입구를 구별해두어 관람객들의 동선을 일정하게 만들었다.
- 관람객 출입정보 관리를 위해 QR코드 출입관리시스템 및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시장 입장 전 자가 문진표 작성은 필수)
- 전시장 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의심환자가 있는지 확인했다.
- 전시장 내에서 마스크와 비닐장갑 착용이 의무화됐다.
- 등록 테스크와 입구 외 필요 구역에서는 1.5m 거리두기 바닥 유저선을 부착시켰고 차단봉을 설치했다.
- 전시홀 안 부스 간격은 4m 이상 넓히고 일방통행을 유도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했다.
- 각 부스마다 손소독제와 흰균물티슈를 제공했다.
- 전시장 전체 출입구, 손잡이, 화장실 등 필수 구역에 1일 2회 이상 특별방역 및 소독을 실시했다.
- 전시장 내부 공조작업을 강화시켰다. (외부공기 유입을 100%로 공기질 관리 강화)
- 음식물 반입은 불가능하며 부스 구역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만 취식이 가능하다. 이때 카페테리아 좌석에는 거리두기를 위한 투명 가림막이 설치됐다.



MBC 뉴스데스크(6월6일)  
야외수영장도 '거리 두고 물놀이'·'물 밖에선  
마스크'

대형 전시장에도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전시회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체온 측정 카메리를 통과하고 일회용 장갑도 착용해야 합니다.  
(안내원) "바코드 찍으셨죠. 장갑 받아 가시고요."  
출입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 이번 박람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 1 생활낚시 인기로 관람객들의 구매욕 상승



최근 낚시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한 생활낚시의 인기로 관련 상품을 찾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 1 다양한 장르의 제품을 전시한 리더낚시 부스도 활기 넘쳤다. 특히 루어낚시 장비를 비롯하여 민물낚시장비와 쿠러가 인기를 끌었다.
- 2 낚시도매업체인 레토피아 부스에서는 다양한 루어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두족류 낚시의 인기 덕분에 얘기를 세트로 구매하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 3 민물, 바다, 루어 낚시 등 다양한 장르의 제품을 전시한 심통낚시 부스는 특히 로드를 찾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KOFISH 2020**

**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facebook**

KOFISH KOFISH2020(한국국제낚시박람회)

LURE

770만 낚시인의 축제!  
-신제품 소개와 최신 트렌드로 한눈에!  
-전문 낚시인의 수호 흉은 노하우 공유와 대담한 이벤트까지!  
2020.6.5~7 경기도 KINTEX 개최지 입장료 3,000

다이와 낚시용품 전문점인 프로피싱 부스에는 이번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 불참한 한국다이와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관람객들을 맞았다. 세련된 디자인의 조끼나 쿠러, 로드 케이스 같은 액세서리가 인기제품이었다.



# 이번 박람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 2 다양한 홍보로 관람객들의 발길 잡은 부스들

### 비엔엘케이스타(주)

비엔엘케이스타(주)는 레저용 자동차를 홍보하기 위해 레이싱 모델을 섭외했다. 비엔엘케이스타의 차별적인 홍보 덕분인지 낚시박람회에 참가한 자동차업체 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으며 곳곳에 플래시  
셔터가 계속 터졌다.



### KZM피싱

지난 3월에 출범한 낚시용품 전문 브랜드인 KZM피싱(카즈미 피싱)도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여 신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팽창식 구명조끼 특별 보상판매 이벤트'인데, 구형 팽창식 구명조끼를 현장 부스에 반납하면 카즈미 트랙스 B1 팽창식 구명조끼 새 제품을 5만 원에 얻을 수 있다. 획기적인 이벤트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박람회 주변에는 KZM피싱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관람객들이 많았다.



**KOFISH2020**  
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 크레모아

여러 부스 가운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부스가 있었다.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캠핑랜턴 전문 브랜드인 '크레모아'(CLAYMORE) 부스다. 밤낚시나 텐트를 쳐야 하는 낚시인들에게 딱 맞는 랜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크레모아 3페이스 플로스 LED 캠프 랜턴'으로 3면구조로 되어있어 배광이 좋으며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는다. 파리솔에 장착할 수 있는 휴대형 서큘레이터인 '크레모아 V600'은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낚시를 할 때 더위와 해충을 해결해줄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 조무사

낚시 라인업체인 '조무사'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 활발히 움직였다. 현장에서 카카오톡으로 조무사 쇼핑몰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관람객들에게 선착순으로 라인을 증정해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 이번 박람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KOFISH2020**  
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김경호 화백

## 3 FISHING & ART

낚시의 즐거움을 예술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있다. 김경호 화백의 16번째 초대전에서는 눈부신 황금색의 쏘가리 그림을 볼 수 있었다. '낚시는 함께하는 문화다'라는 김경호 화백의 슬로건과 그의 그림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낚시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박람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그림들이 걸린 전시장이 있다. 강일호 디자이너의 두 번째 전시회다. 각 대상어를 귀엽고 독특한 그림체로 표현하여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작품이다. 강일호 디자이너가 가장 아끼는 작품은 '출조'라는 작품으로 낚시인의 멋진 실루엣을 깔끔하게 디자인했다.



작품 '출조'



**facebook**



KOFISH KOFISH2020(한국국제낚시박람회)

LURE

779번 낚시인의 축제  
-신제품 소개 이벤트와 혁신 트렌드를 전해드립니다  
-전시·판交会·주제 축제·농협·공유와 다양한 이벤트까지  
2020년 5~6주 경기도 KOFISH 제1전시장 3·4홀



### 강일호 디자이너, 피스마스 대표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디자이너 강일호입니다. 이번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서 저희 피스마스(FISMASS) 브랜드도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피스마스'는 '피스미스터즈'의 합성어로 낚시를 디자인에 접목한 브랜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두 번째 전시회인데요.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저희 대상어를 일반인, 낚시인들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관심과 호응을 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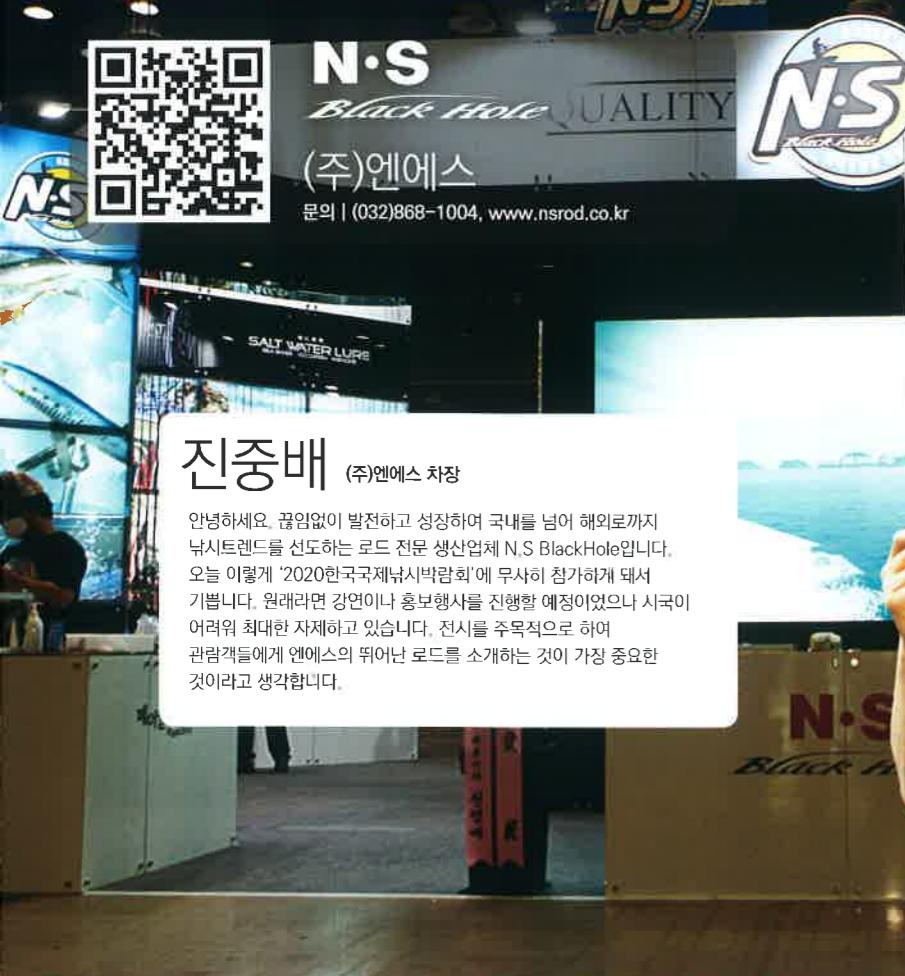
## 4 낚시, 이제는 게임으로 즐긴다

낚시를 예술뿐만 아니라 게임으로 활용하는 부스도 있었다. 주식회사 포텐츠에서 제작한 온라인 힐링 낚시 컨텐츠 '리얼피싱존 타이트라인' 부스에는 직접 게임을 해보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단순 게임 패드가 아닌 낚시장비로 구성된 컨트롤러로 실제 낚시는 하는 것처럼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스크린 골프장에 이어 스크린 낚시장도 변화가에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공지능과 정보처리 시스템, 코딩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낚시 계측 어플, 스크린 낚시가 등장하면서 미래의 산업혁명이 낚시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기대 된다.



# Brand Booth STORY

**KOFISH2020**  
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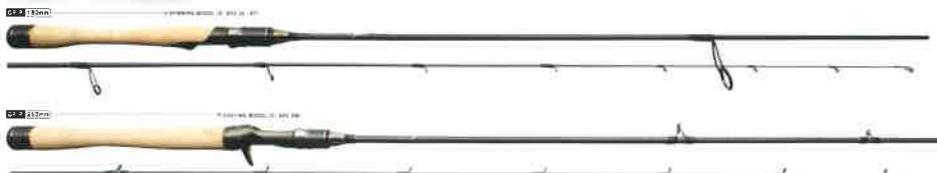


## 진중배

(주)엔에스 차장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낚시트렌드를 선도하는 로드 전문 생산업체 N.S Black Hole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0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 무사히 참가하게 돼서 기쁩니다. 원래라면 강연이나 흥보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국이 어려워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주목적으로 하여 관람객들에게 엔에스의 뛰어난 로드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HIT ITEM



## ELDORADO GENERATION

엘도라도 제너레이션

런커급 배스를 꿈꾸는 앵글러들에게 추천 합니다

최첨단 8축 카본 사양 적용으로 배스 낚시에 꼭 필요한  
감도, 밸런스, 액션, 디자인의 한 단계 높은 성능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이그니션 ▼



## HIT ITEM



## ALBATROSS VIP

알바트로스VIP

완벽한 무게 밸ан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형적인 감성돔 로드에만 중점을 두던 패턴에서 벗어나 어종별·낚시场面별 기능성 로드로 세분화했습니다. 종전 모델의 거친 패턴에서 벗어나 클래식한 패턴으로 전환했으며 기존제품보다 전체적인 탄성 보강으로 기능을 향상했습니다. 각종 경기 낚시를 즐기는 마니아들을 위해 간편한 조작성과 단시간에 많은 움직임이 필요한 경기 낚시에 알맞은 5.0 로드를 출시했습니다.

\*낚시 중 로드로 인한 피로감 줄이기 위해 Weight Balance가 포함된 Butt cap을 적용했습니다.  
(Weight Balance cap 하나의 무게는 20g)



캔두껑으로 만든 자작루어, 어식어를 대상으로 만들, 바다를 가리지 않고 폭 넓게 사용하며 주로 배스, 농어, 가물치 낚시에 많이 쓴다. 물속에 넣으면 내재된 내재된 프로펠러가 반대로 돌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소리가 나오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 풍선처럼 둘면서 플래시 효과가 난다.



라인을 당기면 입이 벌리는  
작동까지 생각하며 세밀하게  
제작되었다.

노끈으로 만든 초판공예(종이접기)  
루어, 사마귀 같은 배스들이  
좋아하는 벌레들을  
형상화했다.



## MINI INTERVIEW

서정은 · 안지연

만화가, (주)엔에스 스텝

(주)엔에스 부스에서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낚시하는 만화가 서정은 명예스텝과 안지연 배스 스텝이다. 두 만화가는 이번 봄박람회 때 직접 만든 페퍼자작루어와 겹드름을 소개해줬다. 서정은 만화가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여리모로 힘든 낚시업체들이 많기에 응원차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지연 만화가는 "이 자작루어를 새로 계획하고 있는 낚시만화에 접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낚시만화가 탄생될지 기대된다.



# Brand Booth STORY

**KOFISH2020**  
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YGF**

영규산업  
본사 | (032)553-6333, www.ygf.co.kr

**문해원** 영규산업 대표

국내 토종 브랜드를 대표하는 로드 전문 브랜드 YGF(영규산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생산 브랜드의 자부심을 갖고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  
참가하여 열심히 알리려고 합니다. YGF 브랜드의 품질, 서비스를 가지고  
꾸준히 홍보해서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HIT ITEM OZZUIKA** 오쭈이카

합리적 가격, 높은 접근성의 갑오징어 주꾸미 전용 로드

우수한 편의성과 경제성을 가진 보급형 갑오징어·주꾸미 로드입니다. 고감도  
슬리드팀 및 스크루 방식의 ASC 릴시트를 채용했으며 슬립 블랭크로  
설계되었습니다. 로드의 경량화로 장시간 낚시의 피로감을 경감시킨 것이 큰  
특징이며, 라인 엉킴을 최소화한 경사 가이드도 장착되었습니다.

갑오징어낚시에 필요한 로드를 찾고 있던 관람객의 '오쭈이카'의 가벼움에 놀랐다.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로드가 가벼워야 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어서 오쭈이카는 그런 관람객의  
니즈를 만족시켰다. 가벼우면서도 너무 연한 연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딱 맞는 로드라면서  
영규산업이 이번 박람회에 판매가 아닌 전시를 위해 참가했다는 것에 아쉬워했다.



**인사말**  
**김오영** (주)아피스, 코리낚시 회장  
낚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낚시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아피스에서도 신상품과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출시된 신상 로드 '천년지기 프리미엄'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쓸 수 있도록 출시된 보급형 작대방침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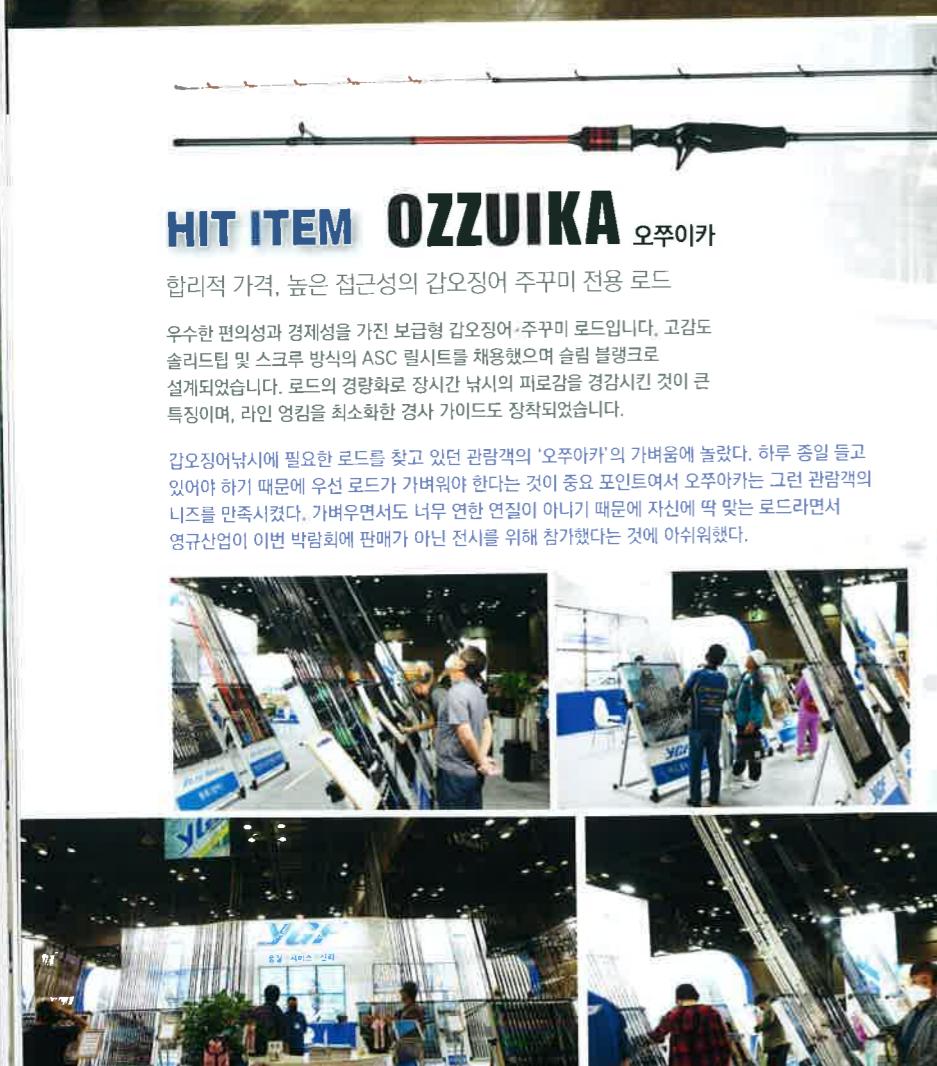


**송준호** (주)아피스 이사

안녕하세요. 30년의 역사를 가진 낚시용품 제조 브랜드인 아피스입니다. 민물, 바다, 루어 등 여러 분야에 상관없이 폭넓게 나아가고 있으며 낚시가방이나 낚시장화 등 다양한 장르의 낚시용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온 브랜드인 만큼 저희 브랜드를 모르는 관람객들을 위해 홍보차 SNS계정이나 광고자료 등 많은 힘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인파가 훈장을 해질 것을 우려해 부스에 미리 좌석을 준비하거나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웃음) 코로나19로 인해 불침한 조구업체들이 많아 관람객들이 적을 것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홍보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오스카 시리즈 : 일산 킨텍스에 개최된 만큼 관람객들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아피스 송준호 이 관람객들은 유료터나 연안 바다낚시에 사용할 로드를 봤는지 밝혔는데, 그럴 때마다 송준호 이사는 오스카 선상이나 연안에 쓸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해줬다고 한다. 생활낚시의 인기가 상승한 만큼 광어, 우럭낚시 공용으로 있는 로드를 찾는 관람객들도 많았는데 오스카 라이트 저로드가 그런 제품이라고 했다.



# Brand Booth STORY

KOFISH2020  
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주)잔카

문의 | (070)4235-6672, <http://zanc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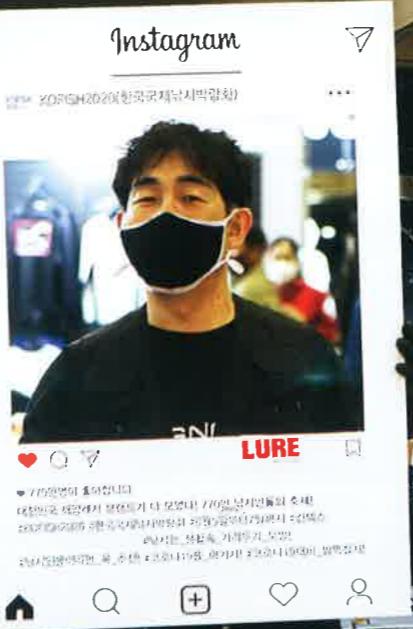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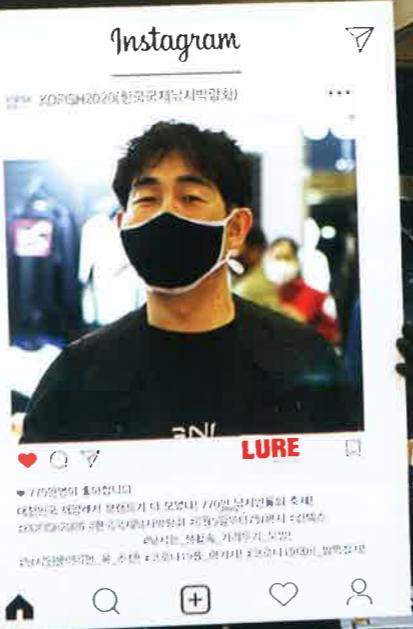
## ZANKA

작년 6월부터 본격적인 런칭을 시작한 국내 브랜드 잔카피싱(ZANKA FISHING) 브랜드입니다. 장비보다는 낚시를 접목한 가능성 패션 계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낚시선발부터 전문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온라인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카피싱은 신생 브랜드로 대중들을 위한 기본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이번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다른 박람회까지 합하면 이번이 4번째 참가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 참가효과 덕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준비해오겠습니다.



### HIT ITEM

"갓바위에서 신을 수 있는 전문 피싱화입니다. 특히 갓바위필트화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멀티플레이를 위해 제작 되었는데 워킹낚시에도 원활한 활동을 보장해줍니다."



HALASZ

하라스

문의 | (02)1661-2460,  
<http://halasz.co.kr/home/main>

## 설희경

(주)아토즈소프트(하라스) 과장

만녕하세요. 저희는 낚시 계족을 전문으로 하는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하라스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서 계족 기구인 하리스와 낚시용 플체, 태클기방, 아이스쿨러 같은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고피싱'이라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전예약을 통한 30% 할인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저희 하라스와 이고피싱이 널리 알리겠으면 좋겠습니다.



## 피싱그립 HIT ITEM

계족기와 피싱그립의 특성을 결합한 제품

"이번에 새로 출시된 하리스 피싱그립이라는 제품을 보시고 '편리하다', '신기하다', '간편화됐다'며 좋은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업체와 연계한 이고피싱의 플체입니다. '수납공간이 넉넉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아이스팩을 넣을 때 최대 22시간까지 보냉력이 가능합니다. 캐리어 형식도 있어서 간편하게 끌어갈 수 있어서 캠핑이나 낚시를 갈 때 딱 좋은 제품이다' 보니 관람객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 제품은 앱과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다. 제품을 계측할 때마다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자동으로 계측기록이 변동되며 조형사진을 찍을 경우 길이, 무게, 총조날짜와 장소, 날씨까지 표출된다. 새로 개편된 앱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방글 낚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로그캐치 기능, 온라인 낚시 토너먼트 개최 서비스, 다양한 플랜 기능들도 들어가 있다.